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개혁주의 사상의 영향

● 로 카이퍼 (네덜란드 국회의원, 철학교수, 박사)

**본 내용은 총신대학교 "세계개혁주의 컨퍼런스"와 한동대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을 편집부에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아시아의 도전

1898년 가을,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네덜란드 수상인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iper)는 칼빈주의 강연으로 미국을 순회하고 있었다. 그는 아시아의 몇몇 기독교인 집단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아시아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과 이교도들로 인해 마음이 복잡했다. 많은 지도자들이 아시아가 크게 위협해 올 것으로 보았고, 카이퍼는 이를 기독교와 기독교에 적대적인 두 문명 간의 충돌로 전망하였다. 잠재적인 새로운 권력으로 일본과 중국이 부상하자, 카이퍼는 아시아에서 더 강력하게 선교활동이 이뤄지지 않았음에 안타까워했다. 아시아에서 이슬람과 불교가 기독교 신앙을 좌절시키고 방해하며 확산되자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라질까 두려웠다.

20세기, 인류는 역사상 가장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낳은 세계대전을 겪었다.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하려 했으나 좌절되었고, 무신론적 정치 이념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가장 큰 적임을 공산주의는 입증해 주었다. 공산주의의 정치적 영향력과 신념이 많은 곳에서 무너졌지만 지금도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정권을 쥐고 있다.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의 거대 국가들이 급성장하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문화를 개방하고 있는데, 그간 폐쇄적이었던 이곳에 기독교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다. 성령은 예기치 못한 방법들로 역사하신다.

아시아는 여전히 반(反)기독교적이며 최종 분투 중이다. 기독교신앙은 아시아에서 일부분을 변혁하고 있다. 문명의 충돌은 문명 안에서 일어난다. 어찌 보면 한국은 선구자이다.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환영을 받았고 빠

게 성장하였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기독교는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한국사회에 정치·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한국의 기독교는 해방에 도움을 주었으며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지지하였고 가정과 교육, 일터 그리고 사회적 윤리에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모습은 자유와 정신이 요구되는 다른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

세계 역사의 흐름에 대한 카이퍼의 예견은 틀렸지만, 다른 면에는 옳았다. 그가 주장한 칼빈주의에 기초한 개혁적인 기독교세계관은 사회 안에서 그 힘을 발한다. 특히 신생 자유주의 국가 이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카이퍼는 세계관의 변혁적 힘을 설명하면서, 자유에 대한 축구가 변혁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개혁적인 사고가 이러한 자유를 구체화시키는 사회의 원칙을

제안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것이 미국을 변화시켰으며, 이제 아시아에서 자리잡고 있다고 보았다. 개혁적인 기독교세계관은 그 잠재력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세계의 문화 중 하나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모든 인간사의 생산적인 생각과 개념을 포함한다. 나는 개혁적인 기독교세계관이 '서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머지' 특별히 아시아와 한국,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보며 이를 조망하겠다.

개혁주의적인 정치사상의 핵심 개념

칼빈주의의 중심적 특징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경외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므로 모든 지혜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주권 사상은 정치와 사회의 인식에 세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1. [권위] 어떤 권력도 절대적일 수 없으며 이는 정의라는 더 큰 개념에 묶여 있다.

2. [사회성] 인간은 사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

3. [책임] 각기 다른 사회적, 도덕적 실천들에는 적절한 권위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먼저,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세상의 권세나 권력은 상대적이며, 하나님과 그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 모든 창조물과 권세들은 모두 그의 뜻대로 지어졌고 그와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물 사이를 가로막는 세력은 주어진 허용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절대적인 권력은 없으며 자신의 의를 위해 행동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를 닮은 성품과 양심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이는 민주주의의 공적 생활에서 본질적이라고 판단하는 다른 모든 자유들의 모체가 된다. 모든 권력은 제한과 지배가 필요하다. 즉, 권력이 한계 내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대항하는 힘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너진 세상에서 본질이라 판단되는 올바른 명령을 지켜 나가기 위해 힘과 권위가 있어야 한다. 권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세워진다. 지구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며,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법'의 개념적 토대이기도 하다. 모든 권력은 더 큰 정의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적 개념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각기 다른 지위와 소명을 갖고 있지만 모두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종이다. 여기에는 지위나 계층의 구별이 없으며 근본적으로 동등한 상태다.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Respublica'(공화국)이다. 공생하며 협력하는 모습은 몸의 각 기관과 비슷하다.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법의 차이는 거대한 사회적 결과를 낳았다. 칼빈주의 철학자인 요하네스 알투스우스(Johannes Althusius)는 사회를 '약속'에 기인한 결과이며 인간은 그 약속 안에서 서로를 '공동 삶의 동반자'로 여긴다고 보았다. 반면, 사회를 '계약으로 맺었다고' 생각한 몇몇 영국의 학자들은 인간을 '서로에 대한 적'이라고 보았는데,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리바이탄(L Leviathan)>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서 계약과 강한 정부가 필요했고, 자신들의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만 한다고 했다. 알투스우스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워서 '다른 이들의 봉사'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끼끼'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게 될지라도(Politica, 22-23) 다른 사람들을 가지 없다고 여기지 말아야 하며, 다른 이들의 이익을 중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현재 '시민 사회'라고 부르는 것의 굳건한 밑바탕이 되어준다. 사회는 사적인 관심이 아니라 공동의 관심에 의해, 개인의 힘이 아니라 공동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는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사회를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한다.

셋째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각자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에 대한 각기 다른 공헌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다. 공동에 의해 세워진 사회는 각자의 책임에 따른 연결망이기도 하다. 이 책임은 자유분방하지 않으며 다른 사회 구조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구체적인 환경에 맞는 규범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이 개념의 이해를 위해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론' 개념을 고안했다. 사회의 권위들마다 영향력을 미치는 그들만의 영역이 있고 각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확실한 독립성을 지니며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권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았고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있다. '영역 주권론'은 개인적·사회적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책임감 있는 실천을 구축하고 이러한 실천과 연관된 규범적인 원칙들을 따르게 돕는다. 사업가는 경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원칙들에 대한 문제 또한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규범적인 원칙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반응이 공정한 사업가를 만든다. 영역이란 인간의 행동에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실천을 구축하는 구조적인 설정이다. 이것은 이 사회의 서로 다른 책임감들을 이해하게 도와주며, 이러한 실천에 한 유효한 규범적인 원칙들에 따르도록 그들을 자극한다.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헌신

모든 권세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사회가 공동에 의해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영역 주권론, 이 세 가지가 개혁적주의가 정치와 사회에 미친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다. 개혁적인 칼빈주의는 최소한 북서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개신교 국가에서 다음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민주적 지배와 법의 규칙의 중요성 같은 헌법 원칙
- 시민 사회를 공동에 의한 것으로 보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결함
- 규범적인 행동들이 필요한 구별된 사회에서의 각기 다른 책임을 위한 영역

이들은 모두 반대할 여지가 없는 것들이다. 물론 시민에게 과도하게 책임감을 요구하거나 정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모든 사회구조에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기독교적 윤리를 설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비판과 평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세계화'라는 이전과는 다른 환경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이 과거 변화와 변형을 주도하던 개혁주의 세계관의 핵심적인 개념에 도전하고 있다. 세계의 변화 앞에 진전된 개혁주의 세계관의 적용이 필요하다. 개혁주의 세계관의 핵심개념인 권위, 사회성, 책임에 영향을 미칠 강력한 두 가지 변화, 세계화와 개인주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세계화는 새로운 종류의 유토피아주의를 선보이고 있다. 이것은 개혁주의 사교의 권위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의 말처럼, 우리는 '평면 사회'에 살고 있어 공간은 더 이상 결정적 제한이 되지 못한다. 세계화는 의사소통의 기술에 의존하며, 사업과 이직,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문화에서 통용되는 행동 수칙이나 국제적 기준을 제공한다. 세계화는 자유분방하고 우세한 경제적 관점을 갖고 있는 세력들을 일으킨다. 새로운 권력의 국제적 구조로 다국적 기업과 은행 등 모든 경제적인 중추에 집중한다. 이것은 현존하는 권위들에 도전한다. 세계화는 지역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을 보지 못하며, 사회적 정의를 요구하지 않고 때로 법적인 기준에 무관심하기도 하다. 만약 권력들이 자유분방해지고 구조가 유동적이며 초국가적인 경제 산실에만 집중된다면 그것에 대항할 힘은 무엇일까? 사회적 정의나 법적인 기준을 초월하여 단 하나의 권력체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지배하고 지도하며 대항할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세계화 추세라도 각 국가가 사회를 작게 유지하여 지역적이고 문화적인 법의 원칙으로 정의의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하고 지도하는 '대항하는 힘'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합의한 지역적, 문화적

으로 근접한 곳에서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를 작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개혁주의 사상은 유토피아적인 꿈을 좇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매일의 삶 가운데 사회의 어려움을 방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게 한다. 사회의 필요에 고심하며,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이는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내가 시사하고자 하는 두 번째 도전은 개인주의의 관련된 것이다. 성경은 개인주의적인 것을 모두 부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개개인의 특성에 열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참된 교육은 인간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개인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것이다. 문제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의 분열이다. 이는 공동체나 사회적 책임에 매이고 싶지 않아 가상세계 등의 자아충족적 유토피아를 꿈꾸다가 다른 사람들과 고립되는 경우를 말한다. 안토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공간과 지역을 초월한 세계화로 인한 이러한 같은 현상을 '귀속성 탈피(disembedding)'라 부른다. 이는 사회적, 도덕적 자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킨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

하다. 사회의 이러한 필요에 공동체를 지향하는 기독교가 사회적 자산으로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윤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실천하도록 도덕적 자산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리라 본다.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은 계속해서 전개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개혁주의 사상의 기본 개념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시민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

문명 안에서의 갈등

미국을 순회하던 115년 전 아브라함 카이퍼는 문명들 간의 충돌, 서구의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아시아와 나머지의 국가 간 충돌로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차 사라질 것을 두려워 하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인도, 중국, 대한민국, 싱가포르 등에서 기독교가 성장했고 그들의 현대화 과정에 기독교가 함께 했음을 볼 수 있다. 갈등은 오히려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다.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그의 유명한 저서 <문명 간의 충돌>에서 미래에 있을 세계의 갈등은 문명 간에 발생할 것이라 보았다. 그는 '냉전은 끝났다'고 선언하였다. 세계의 갈등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문화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문명, 특별히 동쪽 이슬람과 중국 문화가 서양 문화와 서로 갈등하게 될 것이라 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와 한국을 보라. 동남아시아는 문화의 용광로이자 가마솥으로 불교, 유교,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가 나란히 공존하며 분투하고 있다. 이곳의 갈등은 문화 간에 비롯된 것이 아니다. 문화들 '안에서' 생겨난 것이다. 둘째로, 아직도 이데올로기 간의 갈등이 있는 한국이 있다. 남한과 북한은 냉전의 잔재로 아직도 분단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의 한국을 분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끈 것은 문명 간에 아니라 주어진 문화 '안에서'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개혁주의 사상이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다. 사람, 사회, 권위, 그리고 책임감에 관한 개혁주의 사상은 문명 간의 충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문명 안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와 교제하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믿음과 양심을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사회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일의 기초이다. 이 기초적인 힘이 변화하는 세상에 생기를 불어 넣으며 사회를 변혁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아시아에서 열매를 맺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길 소망한다.